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동변화

이은경 · 남용옥¹ · 김설악² · 김민지³ · 한동현³ · 김진범³

춘해보건대학 치위생과, ¹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²여주대학 치위생과

³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색인 :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인식, 구강보건행동, 치위생과, 치위생교육, 흡연

1. 서론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며, 전문교육이란 어떠한 종류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육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으로서 특정 직업인 또는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행하고 있다¹⁾. 따라서 치위생교육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다²⁾.

1965년 지헌택 박사에 의해 시작된 치과위생사 양성은 40년이 지나는 동안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가 확대됨으로써³⁾ 치과위생사의 수요증가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치위생과 교육기관이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으며, 2002년 4년제의 학제 연장으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전공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⁴⁾. 그러나 치위생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

에 대한 국내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Lang⁵⁾ 등은 덴마크 치과대학 신입생과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청결상태와 치은건강상태에 대한 횡단연구를 통해 신입생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구강건강이 좋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 Cavallon 등⁶⁾은 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신입생 때와 비교하여 졸업반 때 간이구강환경지수와 치은염지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 등⁷⁾은 보건계열 여학생 중 치학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건강과 구강환경관리 능력이 다른 보건계열 여학생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는 치위생학 전문교육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1학년 학생과 대학생활 3년 동안 치위생학 전문교육을 받은 3학년 학생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및 행동변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치위생학 전공교육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 보고, 현재 치위생 교육과정 구성 중 수정·보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치위생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찬동하고 협조를 약속한 12개 대학 치위생과 1학년 및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및 행동 변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한 대학은 임의추출로서 경기·강원권 3개 대학, 충청권 1개 대학, 호남권 2개 대학, 영남권 6개 대학이었고, 설문지의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대상자는 치위생과 1학년에서 771명, 3학년에서 646명 합계 1,417명이어서 이들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는 1학년은 771명 모두 여학생이었고, 3학년은 여학생이 643명, 남학생이 3명이었다.

2.2. 연구방법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과 행동에 관하여 기존 연구⁸⁻¹⁰⁾의 설문서를 참고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고안한 다음, 구강보건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한 후, 5월 중에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학교 현장에서 배부하고 기록한 이후 회수하였다.

독립변수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년이었고, 결과변수는 1일 간식횟수, 간식 후 구강위생법, 구강건강지식 습득경로, 치통, 치은출혈 및 치면세마 경험 여부, 흡연율과 치주건강 유해성 인지 여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치통 및 치은출혈 경험 여부였다.

대학생의 경우, 치아우식증이 상당히 많이 진행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통 경험률을 조사하였으며, 치주염이 많이 발생하는 장년기로 넘어가기 직전임을 감안하여 치은출혈, 치면세마 경험 여부, 흡연 여부, 흡연의 치주건강 유해성 인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 경로를 설정하는데에 참고하기 위해서 구강건강습득경로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 버전 12.0(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분석하였다.

치위생과 1학년과 3학년 간 집단별 차이의 유의성 여부는 카이제곱검정법 또는 Fisher의 정확검정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고, 유의수준은 제1종 오류 0.05 수준에서 판정하였으며, 유의하지는 않지만 향후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변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0.2 이하인 경우도 그 경향성을 검토하였다.

3. 연구성적

3.1. 학생들의 1일 간식횟수

1일 간식횟수는 치위생과 1학년과 3학년 두 집단 모두 2~3회가 가장 높아서 치위생과 1학년에서 57.8%, 치위생과 3학년에서 59.3%였다. 4회 이상은 치위생과 1학년 24.0%, 치위생과 3학년에서 15.8%로서 1학년에서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01$) (표 1).

3.2. 학생들의 간식 후 구강위생법

간식 후 이를 닦는 비율은 치위생과 1학년에서 20.8%, 치위생과 3학년에서 34.8%로 치위생과 3학년의 간식 후 잇솔질 비율이 높았다. 간식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은 치위생과 1학년 60.1%, 치위생과 3학년 44.1%로서 3학년에서 1학년보다 낮았다($p < 0.001$) (표 2).

3.3. 학생들의 구강건강지식 습득경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습득경로는 학교강의가 치위생과 1학년에서 77.6%, 치위생과 3학년에서 8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과진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치위생과 1학년 8.0%, 치위생과 3학년 8.5%였으며, TV 방송은 치위생과 1학년 5.4%, 치위생과 3학년 1.5%였다($p < 0.001$) <표 3>.

3.4. 학생들의 치통, 치은출혈 및 치면세마 경험률

학생들의 치통 경험률은 치위생과 1학년에서 80.9%, 치위생과 3학년에서 77.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3학년에서 1학년보다 낮은 경향이었다($p = 0.116$). 치은출혈 경험률은 치위생과 1학년 70.6%, 치위생과 3학년 57.7%로서 치위생과 3학년이 낮았다($p < 0.001$). 치면세마

표 1. 학생들의 1일 간식횟수

간식횟수	치위생과 1학년(N=771)	치위생과 3학년(N=646)	p 값*
0~1회	18.2	24.9	<0.001
2~3회	57.8	59.3	
4회 이상	24.0	15.8	

*Chi-square test

표 2. 학생들의 간식 후 구강위생법

(%)

구강위생법	치위생과 1학년(N=771)	치위생과 3학년(N=646)	p 값*
물로 입 헹굼	18.2	20.3	<0.001
이를 닦음	20.8	34.8	
구강양치액	1.0	0.8	
아무것도 안 함	60.1	44.1	

*Chi-square test

표 3. 학생들의 구강건강지식 습득경로

(%)

지식습득경로	치위생과 1학년(N=771)	치위생과 3학년(N=646)	p 값*
치과·보건소	8.0	8.5	<0.001
학교강의	77.6	88.2	
가족	1.8	0.0	
친구·주위사람	4.0	0.2	
TV 방송	5.4	1.5	
신문	0.3	0.2	
인터넷	1.4	0.8	
기타	4.4	0.6	

*Chi-square test

표 4. 학생들의 치통, 치은출혈 및 치면세마 경험률 (%)

경험 종류	치위생과 1학년(N=771)	치위생과 3학년(N=646)	p 값*
치통 경험	80.9	77.4	0.116
치은출혈 경험	70.6	57.7	<0.001
치면세마 경험	33.7	94.1	<0.001

*Chi-square test

표 5. 학생들의 흡연률과 치주건강 유해성 인지율 (%)

항목	치위생과 1학년		치위생과 3학년		p 값*
	수	%	수	%	
흡연률	35	4.5	20	3.1	<0.001
흡연의 치주건강 유해성 인지율	715	92.7	663	98.0	<0.001

*Fisher의 정확검정법

표 6.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치통 및 치은출혈 경험률 (%)

경험률	흡연(N=55)	비흡연(N=1,362)	p 값*
치통 경험	87.3	79.0	0.188
잇몸출혈 경험	70.9	64.5	0.403

*Chi-square test

경험률은 치위생과 1학년 33.7%, 치위생과 3학년 94.1%로서 3학년에서 1학년보다 높았다($p < 0.001$)〈표 4〉.

3.5. 학생들의 흡연률과 치주건강 유해성 인지율

학생들의 흡연률은 치위생과 1학년에서 4.5%, 치위생과 3학년에서 3.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치주건강에 대한 흡연의 유해성 인지율에서도 치위생과 3학년이 98.0%로 치위생과 1학년 92.7%로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다($p < 0.001$)〈표 5〉.

3.6.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치통 및 치은출혈 경험률

치통경험률은 흡연자에서 87.3%, 비흡연자에서 79.0%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p = 0.188$). 잇몸출혈 경험은 흡연자가 70.9%이었으며 비흡연자가 64.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03$)〈표 6〉.

4. 총괄 및 고안

www.kci.go.kr
 개인의 건강증진행위는 아동기부터 학습과정을 통하여 몸에 익혀지게 되며, 특히 성인 초기에 있

는 대학생 시절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기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 인데 반해,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여 무관심과 부주의한 태도를 갖기 쉬워 성인 중기나 후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 필요성이 큰 시기이다¹¹⁾. 특히 구강건강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교육의 대부분은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구강보건교육의 시행이 적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고학년일수록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여 학교강의 등으로 인해 정기 구강검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¹²⁾.

구강보건교육은 학생들이 구강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고,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태도 및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구강건강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달성 과정이다¹³⁾.

이에, 저자는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중 치위생학을 2년 동안 전공하여 교육을 받은 치위생과 3학년 학생과 이제 치위생학 전공을 시작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행동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치위생학 전공교육이 가져오는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일 간식횟수는 학년에 무관하게 2~3회가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간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이 등¹⁴⁾은 치위생과 학생과 비보건계열 학생의 1일간 간식횟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¹¹⁾는 대학생의 식습관 중 음식선호도 조사에서 45.3%가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

서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단 음식을 간식으로 선호하고 있으므로 간식의 횟수를 줄이는 한편, 간식 후에는 잇솔질을 습관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간식 후의 구강위생법으로 이를 닦는 비율은 치위생과 1학년에서는 20.8%였지만, 치위생과 3학년에서는 34.8%여서 치위생과 3학년이 1학년보다 간식 후 잇솔질 비율이 높아서, 치위생학 전공교육으로 간식 후에도 이를 닦을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¹⁵⁾에서 1일 평균 잇솔질 횟수가 2회 이상으로 조사되어 식사 후 하루 두 번 정도 잇솔질을 하며, 간식 후에는 잇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치면세균막관리 교육을 받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잇솔질 횟수가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간식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은 치위생과 3학년이 44.1%로 치위생과 1학년 60.1%보다 낮아서 치위생과 전공교육이 학생들의 구강보건행동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었다($p < 0.001$). 하지만, 치면세균막관리 교육을 2년 이상 받고 있으며 구강질환의 예방의 최우선 방법이 잇솔질이란 것을 잘 알고 있는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이 간식 후 아무런 구강보건행동을 보이지 않는 비율이 44.1%는 상당히 높다고 사료된다. 이에 배 등¹⁶⁾은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동기를 확실히 부여하는 교육을 하려면 개별직접 양방식교육방법으로 교육대상자의 요구와 행동 유발인자를 파악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행동유발인자를 제공하여 행동을 지속시키거나 행동을 변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박¹⁷⁾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악치모형을 통한 1회성 시범교육을 받았으며 치면세균막관리 교육유경험자와 교육무경험자의 치면세균막관리 점수에 차이

가 없으므로 교육방법의 개선과 반복실습교육 기회를 증대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잇솔질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교육을 1학년뿐만 아니라 2년 동안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에게도 반복실습 교육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간식 후 잇솔질의 횟수를 증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습득경로는 학교강의가 치위생과 1학년과 3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과진료기관 또는 보건소였으며, 그 다음으로 TV 방송 등의 순서이었다. 박¹⁷⁾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생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건소나 TV 방송을 통하여 대중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의 치통 경험률은 치위생과 1학년과 치위생과 3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3학년에서 1학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이었으며 ($p=0.116$), 치은출혈 경험률은 치위생과 3학년이 치위생과 1학년보다 낮았으며, 치면세마 경험률은 치위생과 1학년이 33.7%, 치위생과 3학년이 94.1%로서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다. 대학생의 치통은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행된 치아우식증의 결과이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¹⁵⁾에서 대학생 시기인 18~24세에 우식증에 이환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우식영구치수는 0.75개로서 대학 입학 이전 시기의 치아우식증 이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치위생과 3학년들은 잇몸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인 치면세균막의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잇솔, 치실, 치간솔 등의 사용과 치면세마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의와 치면세마 실습 또는 포괄치위생 과정을 통해 숙지하여 실천함으로써 치은출혈 경험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치면세마 경험률이 3학년에서 1학년보다 높은 것은 치면세마 전공교육실습을 통하여 치면세마를 기본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학생들의 흡연율은 치위생과 1학년에서 4.5%, 치위생과 3학년에서 3.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008년 흡연실태조사 보고서¹⁹⁾에서 성인 여성 19~29세의 흡연율이 4.8%로서 치위생과 1학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치위생과 3학년은 약간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교육을 통하여 흡연에 대한 지식과 구강건강과 관련성에 대해 인지가 높아진 결과로 생각된다.

치주건강에 대한 흡연의 유해성 인지율에서도 치위생과 3학년이 98.0%로 치위생과 1학년 92.7%로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다($p<0.001$). 김 등²⁰⁾은 20대 성인 흡연자는 비흡연자나 금연자보다 우식치아나 결손치아가 많고, 치주질환 발생도 높으며, 흡연자의 구강건강 수준도 비흡연자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황 등²¹⁾은 여성의 흡연은 남성과 같은 질병 이외에 임신율 저하,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생리의 문제, 조기 폐경 등의 위험률을 높이며, 특히 임신부가 흡연을 할 경우 유산, 저체중아, 태아기형, 영유아기의 성장지연과 호흡곤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정²²⁾은 흡연자의 80% 이상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하므로 치과위생사들이 청소년 구강보건교육시에 금연교육을 포함시켜 금연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이 여학생인 치위생과 학생들 중 흡연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흡연자 개인에게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통 경험과 잇몸출혈 경험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안²³⁾과 윤 등²⁴⁾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구

강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흡연은 구강영역에서 구취, 치아우식증, 치주병, 급성괴사성궤양성치주염, 치아마모증과 치아변색, 상치치유지연, 백반증, 구강암 등의 각종 구강질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²⁵⁾. 따라서 치위생학 전공교육에서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교육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금연교육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공교육으로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원의 제약으로 치위생과 개설대학 중 협조가 용이한 12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전국 치위생과 학생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대상 12개 대학이 전국적으로 분포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에서 보고될 결과에 대한 경향을 예견할 수 있어서 본 연구결과도 상당히 실용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다. 아울러, 치위생과 전공교육이 학생들의 구강건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계속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5. 결론

치위생교육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다. 이에 저자는 치위생 전문교육이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및 행동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생들의 1일간 간식횟수는 학년에 상관없이 2~3회가 가장 높았으며, 간식 후 잇솔질을 하는 학생은 치위생과 1학년은 20.8%, 치위생과 3학년 학생은 34.8%로 높았다($p < 0.001$).
2. 학생들의 구강건강지식의 습득경로는 치위생과 1학년과 3학년 모두 학교강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치과진료기관, 보건소 등의 보건의료기관이었으며, 그 다음은 TV 방송 등의 순서이었다($p < 0.001$).
3. 학생들의 치통 경험률은 3학년에서 1학년보다 낮은 경향이었으며($p = 0.116$), 치은 출혈률은 3학년에서 1학년보다 낮았고, 치면세마 경험률은 3학년에서 1학년보다 높았다($p < 0.001$).
4. 흡연율은 치위생과 1학년이 치위생과 3학년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01$).
5. 흡연에 대한 유해성 인지율은 치위생과 1학년보다 치위생과 3학년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6.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공교육 과정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김종배, 백대일, 신승철 외 3인. 치학개론. 4차 개정판. 서울:고문사;2001;167.
2. 김응권, 김영진, 김창희 외 7인. 치위생학의 교육표준화 및 발전방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위생교육협의회 2005.
3. 강부월, 김영경, 김진아 외 4인.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서울:고문사 2007;209-244.
4. 황미영. 치위생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치위생교육 인정평가 기준에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4):193-204.
5. Lang NP, Cumming BR, Loe HA, Oral hygiene and gingival health in Danish dental students and faculty.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97;5(5):237-242.
6. Cavaillon JP, Conge M, Mirisch D, Nemeth T, Sitbon JM. Longitudinal study on health of dental students at Paris VII University.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82;10(3):137-143.
7. 성진호, 김동섭, 송요환, 장기완. 치학전문교육이 광주보건대학 보건계열 여학생의 구강건강과 구강환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2):137-146.
8. 원상연, 신승철, 김선영. 대학신입생들의 구강상태인식도와 상대구강진료필요도에 관한 상관관계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21(3):491-503.
9. 윤희숙. 대학신입생들의 구강보건 인식도와 구강위생상태와의 관련성. 대구: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0. 배지영. 전문대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1. 이선미.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인식과 그 영향요인 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1):41-51.
12. 김설희, 구인영, 허희영, 박인숙. 일부 여자고등학생의 구강보건경험과 구강보건교육 인지도 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2):105-113.
13. 진보형, 김영수. 우리나라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교육자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학구강보건학회지 2002;26(3):397.
14. 이은경, 김지영, 윤영숙 외 3인. 치위생과 학생과 비보건계열 학생의 일부 구강증상 경험과 구강건강 지식과 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9;33(1):134-144.
15. 보건복지부.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II. 조사결과보고서 2006:51-70.
16. 배광학,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성인대상치간배천회전잇솔질 교육방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24(1):33-47.
17. 박덕영. 치면별 치면세균막지수분석에 의한 치면세균관리교육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자연과학 논문집 2000;16(2):67-82.
18. 박영남. 치위생과와 일반계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 관련 요인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6;6(2):129-141.
19.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성인 흡연실태조사(한국갤럽). 2008년 흡연실태 조사보고서. 2008:10-12.
20. 김숙향, 장종화, 박용덕. 일부 대학생의 흡연행위와 구강건강 인식도와와의 관련성.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5;5(3):139-143.
21. 황승주, 오상우, 김순남 외 3인. 한국여성흡연자의 흡연양상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 가정의학회지 2000;21(3):345-355.
22. 정재연. 치위생과 학생의 흡연에 관한 지식 및 실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

7(3):317-327.

23. 안동성. 흡연량과 우식경험영구치지수, 치주조직지수, 구강위생지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24. 윤정숙,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근로자 치주조직병발생에 대한 흡연과 음주 및 매일잇솔질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2):197-205.
25. 박주희, 김영남, 유자혜 외 3인. 한국성인에서 흡연과 치주낭 형성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3):293-301.

Abstract

Behavioral changes of dental hygiene course students according to oral health knowledge

Eun-Kyoung Lee · Young-Ok Nam¹ · Seol-Ak Kim²
Min-Ji Kim³ · Dong-Hun Han³ · Jin-Bom Kim³

Dept. of Dental Hygiene, Choonhae Health College

¹*Dep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²*Dept. of Dental Hygiene,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³*Dept. of Preventive and Community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dental hygiene course, dental hygiene education, oral health behaviors,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perception, smoking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which the professional dental hygiene education has on the knowledge and behavioral change for oral health to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s of dental hygiene.

Methods : 771 students in the first grade and 646 students in the third grade who were attending the departments of dental hygiene from 12 colleges in Korea were surveyed.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students in the colleges during May and asked them to answer the questions and then recovered them on the spot.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using a SPSS/PC program and the difference of significance depending on the group of the students was tested by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Results : In the number of eating snacks by the students during one day, 2-3 times was the highest, irrespectively of the grade. The rate of the students brushing their teeth after snack was higher in the third-grade students(34.8%) than in the first-grade students(20.8%). As the path of acquiring oral health knowledge, all of the first-grade and third-grade students replied that their school classes had impacted them the most. The rate of toothache experience was a higher tendency in third-grade students compared to the first-grade students($p=0.116$). The rate of gingival bleeding experience was

lower in the third-grade students than in the first-grade students. The rate of oral prophylaxis experience was higher in the third-grade students than in the first-grade students. In the smoking rate, there was lower in the third-grade students than in the first-grade students. The rate of acknowledging smoking hazard to the periodontal health was higher in the third-grade students than in the first-grade students.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third-grad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s who were majoring in dental hygiene had a higher perception of oral health than the first-grade students whose the dental hygiene education period was short.

접수일-2009. 09. 09 수정일-2009. 12. 15 게재확정일-2009. 12. 23